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 부국장

생명소리

아마 이 글을 받아 보실 때쯤 봄은 등을 보인 채 멀리 고샅을 지나고, 논두렁 길을 거쳐 저~만치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함께 듣고 싶은 봄 이야기이길래 여기에 적어봅니다. 글을 보내는 지금은 4월 13일입니다.

원불교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의 경험이랍니다. 일본에서 열린 연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연수생들을 숲속 계곡으로 데리고 간 주최측은 백지 한 장씩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 듣고 있는 소리를 여기에 모두 적어 보십시오.

고개를 한번 가웃한 이 활동가는 패기차게 볼펜을 굴렸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여기저기서 들리는 새소리, 계곡과 나뭇잎 사이를 흩어내리는 바람소리. 여기까지 적고 냐더니 더 이상 볼펜을 놀릴 꺼리가 없더랍니다. 아는 새 이름 몇개 떠올려 소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나뭇잎끼리 서걱대는 소리도 포함시켰고, 물소리도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리, 여울이 되어 흐르는 소리 따위로 나눠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귀를 바짝 곤추세워도 10개 이상의 소리를 구별할 수는 없었고, 써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정도면 평균은 했겠지 라고 생각하며 답안지를 냈답니다. 잠시 후 주최측은 수거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아름다운 소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산벚이 꽃봉우리 터뜨리는 소리, 산개나리 꽃잎 스르르 떨어지는 소리, 스치는 바람에 복숭아 꽃잎의 떨림, 장끼가 까투리 부르는 소리, 까투리의 맛장구치는 소리, 포란 중인 산비둘기가 꾸룩꾸룩 대는 소리, 산까치의 꺾꺾대는 소리, 도롱뇽 물살 가르는 소리, 개구리 풀섶을 바라보며 눈 깜빡이는 소리, 바람에 찰랑이는 처녀의 머리카락 소리. 듣기만 해도 가슴이 소소히 떨리는 소리들이 한정없이 이어졌습니다.

평균은 했겠지 라던 생각은 종적을 감추고, 저도 모르게 고개가 푹 꺾였습니다. 소리는 생명의 표시입니다.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시이지요. 갓 난 것들이 내지르는 울음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열릴 때 소리가 있었고, 세상이 닫힐 때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꽃 필때 소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들을 수 있는 소리란 고작 10개 남짓이었다니, 이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 들으며 나는 박목월 시인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운사월>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운사월 해 길다 피꼬리 올면, 산 지기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엳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맘 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눈먼 처녀에게 세상은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빛으로? 촉감으로? 냄새로? 아닙니다.

그에게 세상은 무수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의 수줍음도 설레임도 결국 소리를 매개로 꽃 필 것입니다. 소리는 충만한 생명이고, 풍부한 상상이며, 생동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처녀는 수줍게 문설주에 귀대어 엳들을 수 밖에요. 그의 부끄러움은 눈먼 처녀의 수줍은 엳들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소리들이 내 가슴 속에 춤을 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얼마나 포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시 봄은 그 생명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4월 우리 집 뒷산은 진달래 산개나리가 요란을 떨고 있고, 산수유 닳은 생강나무도 무더기로 노란 고명을 이곳저곳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진달래는 이미 능선까지 점령한 채 도열해 있습니다.

소리와 관련한 아름다운 경험을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꽃 피는 소리를 들을 양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달래가 무더기로 망울져 있는 곳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귓속도 몇 차례 후볏습니다. 그러면 꽃은 내게 그 내밀한 소리를 들려줬을까요?

집에 돌아온 나는 이렇게 백지에 적었습니다. 한 밤중 눈 내리는 소리-진달래, 유치원 아이들의 까르륵 숨넘어가는 재잘거림-개나리, 펑펑 폭죽 터지는 소리-목련.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던히 머리를 굴리고, 내가 아는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꽃 피는 소

리를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듣거나 느끼지 못하니 당연한 일입니다. 새끼 손톱만한 노랑제비꽃부터 입 속 가득히 들이 차는 함박꽃까지, 팝콘처럼 무수하게 피어나는 벚꽃에서부터, 텅텅떨어지는 동백꽃까지 나는 소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너가지 소리라도 건졌으니, 그리고 생명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끈을 잡았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노릇입니까.

종이를 제쳐놓고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소리를 듣고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그러하듯 선의만 가득한, 순연한 모습일 겁니다. 얼굴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생명의 탄생만큼, 생명의 약동만큼 아름다운 게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생명이니 그들은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누구의 시처럼 까치, 나비는 물론 아주까리 동백꽃에도 병글병글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세상엔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무력한 아이들, 가난한 이들의 머리에 폭탄을 쏟아붓는 야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꼬물대며 기는 지렁이를 조심스레 피하고, 길가의 풀잎 한 포기에도 허리를 굽히는데, 어찌 이웃을 향해 칼질을 하고 총을 난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스럽거나 림스펠드다운 이들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봄도 여지없이 무수한 생명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내 곁에서 기쁨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깊은 산 산지기 눈먼 처녀처럼, 문설주에 귀대고 조용히 들어볼 일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를,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를.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은 누이의 손을 잡고, 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모두가 눈을 감은 채. PIPIPIPI